



품질안정성 위한 완벽 시스템 구축

프리프레스 분야 국제경쟁력 향상 주도



김성원 대표이사 ▶

1986년 성명기획으로 시작해 (주)윙덕디앤시에 이르기까지 2차례에 걸친 상호의 변경과 시간적인 흐름을 통한 변화가 기업에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세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국내 최고의 기술로 승부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만큼 발빠른 성장을 거듭해 온 것은 (주)윙덕디앤시만의 특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맥디자인시스템의 일반화로 그 가치가 축소되기는 했지만, 95년 초 당시 최고의 화상처리 시스템인 싸이텍스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해 온 김성원 사장은 “프리프레스업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모험적이기는 했지만 선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술적 노하우 쌓기에 주력했던만큼 투자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

습니다”라며 지금도 변하지 않는 기술 및 설비투자에 대한 의지를 다시 보였다.

장기적인 발전을 바라보며 투자의 시기를 지나오던 지난 98년, IMF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했던 (주)윙덕디앤시는 직원들의 단합과 철저한 품질과 납기준수로 쌓아온 고객과의 신용을 토대로 눈 앞의 높은 고개를 무던히 넘는 저력을 보이기도 했다.

이제 IMF의 어려움을 겪고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재도약을 선언한 (주)윙덕디앤시는 그 시작으로 디자인실 확보를 선택했다.

지난 99년 12월 삼호물산의 디자인실을 인수, 디자인에서 가공, 인쇄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특징만 알게 되면 전과정을 (주)윙덕디앤시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으로써 명실공히 국내 프리프레스업계 최고의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전과정에서 컴퓨터 설비를 이용, 필름없이 교정이 가능해 원부자재를 절감할 수 있는 한편, 실린더제작과정의 데이터를 구축해 각 제품별 특징에 맞는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주)윙덕디앤시의 시스템화에 대해 윤승식 상



▲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주)용덕디앤시 전경

무이사는 “이처럼 안정적인 시스템을 통해 재출고시에도 품질의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 고객들로부터 만족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한편, 인쇄관리 데이터의 구축을 통해 유저들이 교정작업을 할 때나 인쇄를 할 때 불가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을 덧붙여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사전 컨폼제도와 데이터화된 시스템 안에서 작업을 하게 되므로 조각 후 30분 이내에 작업을 시작할 수 있어 시간적인 효율화를 꾀할 수 있고, 데이터화로 인한 정확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많은 설비투자를 통한 효과는 또 있다.

맥시스템 등 선진설비가 충분하고 설비마다 전문적인 실무자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과 1대 1 작업이 가능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한치의 오차없이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문 인력에서부터 시스템까지 프리프레스 분야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는 (주)용덕디앤시는 유저들에게 일을 받아서 처리만 하던 일반적인 개념을 벗어나 고객에게 좀 더 나은 제안을 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기도 하다.

전체 생산량 중 30% 정도를 미주 쪽에 수출하고 있는 (주)용덕디앤시는 새 천년에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최고의 품질 추구와 단납기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한편, 연포장에 국한되었던 현재를 뛰어넘어 중포장까지 영역을 확장, 기술적 노하우 축적에 충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실 산업자재는 일본이나 독일재 등을 모방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프리프레스업계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국제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디자인에서 편집에 이르기까지 자체적인 개발은



놓칠 수 없는 과제입니다”라는 김 사장은 과제 해결의 첫 걸음을 딛는 의미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일본과 독일의 기업과 기술협력 관계를 체결해 선진기술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독일 등 선진국의 관련전시회에 참가해 독일부터 시작해 선진국의 산업자재의 기술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실무자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전사적인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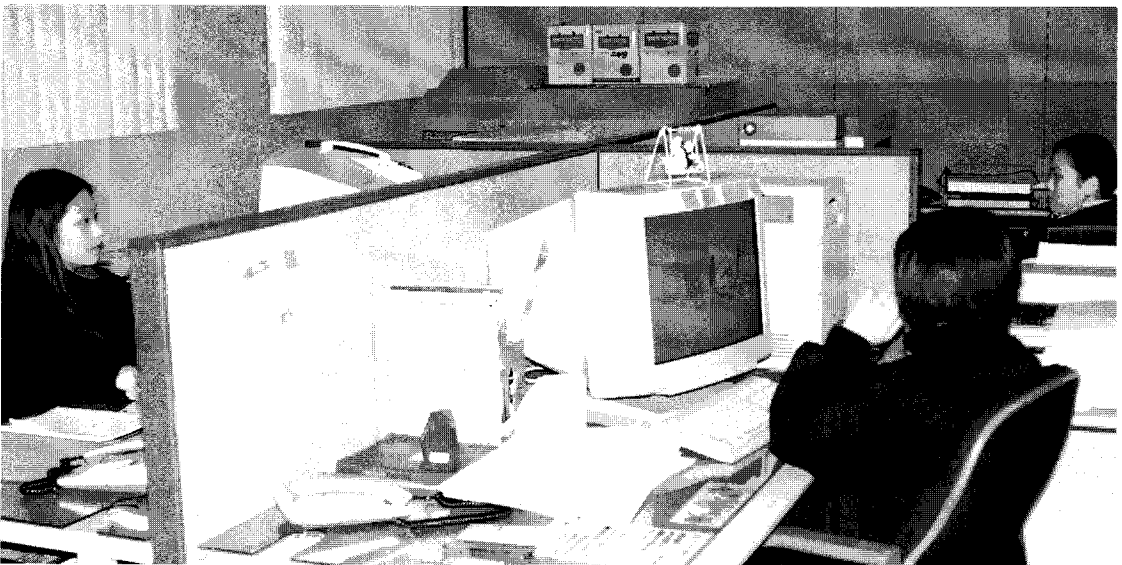
가깝게 올해 5월에 열리는 뒤셀도르프 두루파에 참가해 시스템과 설비의 재투자를 추진할 계획과 함께 수성잉크 생산에 대비해 일본의 도요잉크와의 기술제휴를 추진하고 있기도 한 (주)웅덕디앤시는 또한 작업데이터를 인력을 이용해 전달하지 않고 통신상으로 전송하는 온라인시스템을 갖추고 실험단계에 올라있기도 하다.

전체 공정의 시스템 및 데이터화를 주도하고 있

는 윤 상무는 “이 온라인 시스템이 안정될 경우 재택근무가 가능해지고, 여성인력의 육성에도 지금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라며 섬세한 여성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인만큼 가사 등으로 인해 도태될 수 있는 여성인력의 작업환경에도 적극적인 제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최근 경쟁이 과도해지면서 환경이 열악해진 업계의 현 상황은 버텨가고 있는 수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프리프레스업계의 현재를 표현한 김 사장은 기술적인 노하우와 정당한 거래질서가 맞물린다면 인쇄업계까지 통틀어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말로 프리프레스업계의 미래를 견지하기도 했다.

2001년부터는 능력위주의 연봉제를 실시하고, 자신의 발전에 투자하려는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김 사장은



▲ 최근 (주)웅덕디앤시의 또 하나의 힘이 된 디자인실



▲ (주)용덕디앤시는 전사적인 컴퓨터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직원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투자가 궁극적으로 는 기업의 힘을 키우는 토대”라면서 앞으로 (주) 용덕디앤시를 프로화된 전문가 집단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과당경쟁이 난무하고 있는 업계의 현실에 대해 가격이 낮아지면 기술성장을 위한 재투자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업계의 발전에 있어 소모적임을 지적하는 김 사장은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업계의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화와 데이터화를 통해 설비가 선진화되면서 시간적으로나 자재 쪽으로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게 되자 유저들이 단가를 낮추려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대해 윤 상무는 “각 설비마다 전문가들이 배치되고 디자인적인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시간적인 절약을 통

해 유저들에게 돌아가는 보이지 않는 이윤을 생각해야 합니다”라면서 아직까지는 유저들의 인식이 부족해 가격 조정상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내보였다.

앞으로 중포장 분야를 개척하고 국내 프리프레스업계의 해외기술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펼쳐보이는 (주)용덕디앤시의 또 한가지 특징은 쾌적하고 널찍한 사무실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수하고 안정적인 품질의 생산을 위해 작은 투자부터 아낌없이 실천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계기라 하겠다.

앞선 생각이 앞선 품질을 만든다는 의지를 끊임없이 현실화해내고 있는 (주)용덕디앤시가 프리프레스업계에 또 하나의 발전의 모태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

윤지은 기자